

광주·전남 교육계 메타버스 올라탔다

(3차원 가상 세계)

동신대, 지역 대학 최초 메타버스 강의 도입 전남대, 가상캠퍼스 구축... 디지털 전환 가속 호남대·교육연구정보원 등도 인재교육 활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광주·전남 교육계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활용에 뛰어들었다. 동신대학교는 메타버스 강의를 도입했고 전남대학교는 가상캠퍼스 구축에 나섰다. 호남대학교와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등도 메타버스를 통해 인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동신대는 1일 시작하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5개 전공과 2개 교양 교과목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활용한 수업을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학 수업에 메타버스를 도입한 것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동신대가 처음이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으로 아바타를 생성·선택한 뒤 수강 신청한 과목의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들으면 된다.

아바타의 손을 들어 교수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교수 또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질문에 답하거나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야외 수업과 발표 수업은 물론 VR 고글형 디스플레이(HMD) 기기를 활용하면 실현·실습까지 가능하다.

동신대는 2학기 7개 교과목을 시범 운영한 뒤 학생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학기에는 메타버스 강의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최근 '메타버스 캠퍼스 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단계별 가상캠퍼스 구축에 나섰다.

먼저 '브이스토리(Vstory)'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수업과 학술대회 등을 추진한다. 실제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1·2학년

170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로 멘토링을 했다.

또 1학과와 계열학기 9개 국립거점대학이 참여한 학점교류 프로그램 1과목에 대해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호남대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재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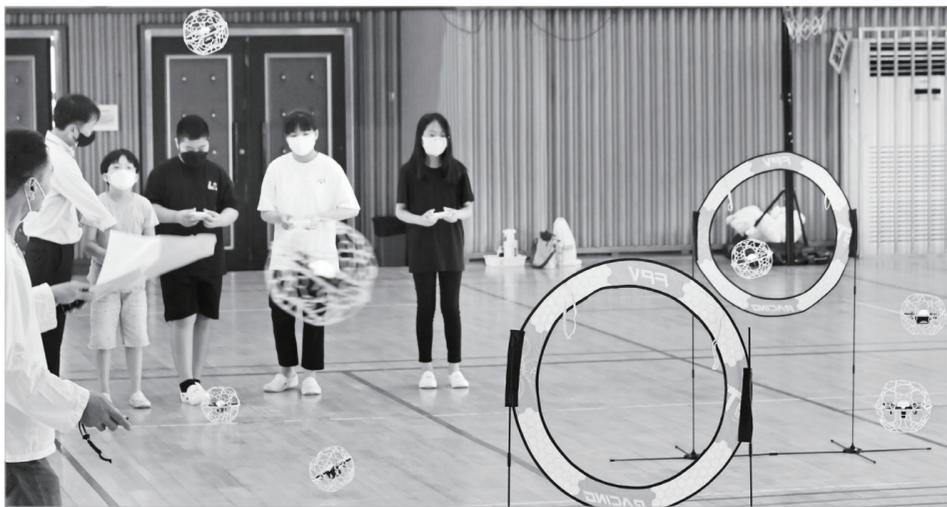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초청 특강을 잇달아 열어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수 연구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강을 이어가면서 'AI특성화대학'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도 최근 광주 초·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AI·SW 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코로나19와 온라인 교육으로 관심이 높아진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교원들의 AI·SW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향후에도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한다. 가상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콘텐츠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나라 기자



“드론으로 축구해요”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무등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찾아가는 드론 축구교실에서 복귀청 관계자들과 대현드론축구협회 광주지회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드론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오늘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올해 개편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모평)가 1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8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만 8,677명으로, 재학생이 4만9,062명, 졸업생 등이 10만9,615명이다.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지원자 수는 3만5,778명 증가했는데 재학생은 6,732명 감소했지만, 졸업생 등은 4만2,510명 늘었다.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는 3만1,300명 늘었고 재학생은 225명 줄었지만, 졸업생 등은 3만1,555명 증가했다.

졸업생이 늘어난 것은 일부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환을 확대한 데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 출제 영역과 문항 수 등이 동일하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이 봐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수험생이 선택한 1개 과목만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과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됨에 따라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에는 한국사 답안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를 위해 15분이 부여된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끝나면 2분 이내에 문제지를 회수한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 스킵너를 이용해 이뤄지므로 답안 작성 시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성적은 다음 달 30일까지 통보되며 성적표 배부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모의평가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표 표지를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알몸으로 퀵보드 활보’ 20대 남성 송치

광주 남부경찰서는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다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0시 4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A씨의 추행에 균형을 잃은 피해 여성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팔과 다

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퀵보드를 타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퀵보드를 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한 A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민빈 기자

광주전자공고, 자동차 정비교육 선도

전국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 정비교육과정 개발

광주전자공고가 전국 최초로 특성화고 자율주행 자동차 정비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전자공고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정비 교육과정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조 이해와 고장진단, 안정적인 정비 실습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정비 교육과정은 자율주행기반의 최신 자동차가 적용된 첨단 기자재를 직접 제작·구입해 마련한 실습장에서 이뤄진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장에 이용해 정비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전자공고 김용태 교장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반 산업도시인 광주는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기술발전을 위해 관련 현장 기술인력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광주전자공고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며 4차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정비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정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8.7% 줄었다

생활비 대출도 감소...코로나 영향 사립대 기부금 11%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5개교 등의 '2021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2학과와 올해 1학기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1

만9,94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019년 2학과와 작년 1학기)보다 8.7%(3만 9,930명) 줄었다.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를 전체 재학생 수로 나눈 학자금 대출 이용률도 12.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비 대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

인”이라고 추정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1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7만1,000원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매비, 실험실습비 등을 말한다.

일반·교육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 6,714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억 원 증가했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가 장학금이 2조 7,358억 원으로 58.6%를 차지했고 교내 장학금이 1조 7,690억 원(37.9%), 사설 및 기타기관 장학금이 1,435억 원(3.1%) 등이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33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1,000원 늘었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156곳의 교비 회계 적립금은 7조9,316억 원으로 전년(7조9,186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사립대학 기부금의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작년 일반 사립대 156곳의 기부금 총액은 5,619억 원으로 전년(6,307억 원)보다 10.9%(688억 원) 줄었다. /연합뉴스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2억 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 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 13억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정유, 입주맞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p> <p>광산구 신가동(아파트)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9/8)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5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p> <p>전남</p> <p>회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회순군 백이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정)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p> <p>시외</p> <p>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p> <p>062-382-5500</p>